

秘



獨島問題概論

外交問題叢書第十一號

外務部政務局

獨島問題概論目次

第一章	獨島에對한史的考察	一頁
第一節	獨島에關한古記録	一
一	獨島와可支島	一
二	獨島와三峯島	二
三	獨島와千山	三
四	獨島의名稱	五
五	鬱陵島所屬問題의獨島	七
六	鬱陵島開拓과獨島	一
第二節	日帝의獨島強奪	一四
一	俄日勢力의角逐과獨島	一四
二	中井養三郎의東奔西走	一七

第一節	第二次韓日會談에서의 獨島問題	五一
第二節	獨島不法侵犯 및 銃擊事件	五二
一	第一次侵犯	五二
二	第二次侵犯	五九
三	第三次侵犯	五九
四	第四次侵犯	六〇
(1)	日本新聞報道와 그에對한措置	六四
(2)	韓日間의 交換覺書	七〇
(3)	第三次調查團派遺	七五
五	第五次侵犯狀況	七六
六	其後의 侵犯 및 銃擊에關하여 交換된 韓日間의 覺書	八四
第三節	日本の再武装과 獨島	九六
第四節	獨島領有權理論에關한 交換覺書	一〇七
第二章	獨島領有問題를圍繞한 韓日關係	五一
(5)	日本の ABC 線과 크라-크線	四七
(4)	第二次調查團派遺과 美軍機爆擊事件	四三
(3)	海洋主權宣言과 獨島에關한 往復覺書	三九
(2)	美軍機爆擊練習事件	三八
(1)	第一次學術調查團派遺	三四
三	韓國民의 獨島에對한 關心	三四
二	日本講和條約과 獨島問題	三三
一	日本の領土權放棄地域과 獨島	二八
第三節	八一五解放後의 獨島의 地位	二七
五	日帝支配下의 獨島의 韓國領有權을 證明하는 文獻	二三
四	齋陵郡守의 措置와 韓國의 實情	二一
三	領土編入과 高根縣告示 第四〇號	一九

一	一九五三年七月十三日序 竹島에 關한 日本 政府의 見解	一〇七
二	一九五三年九月九日序 代表部 覽書와 反駁書	一一四
三	一九五四年二月十日序 日本 外務省 覽書와 反駁書	一三一
四	一九五四年九月二十五日序 代表部 覽書와 反駁書	一五一
第五節	獨島 燈台 及其他 諸施設 設置에 關한 交換 覽書	一八九
第六節	獨島 問題 國際 司法 裁判 所에 關한 交換 覽書	二〇四
第七節	獨島 圖案 部 票發行에 關한 交換 覽書	二一三

第一章 獨島에 對한 史的 考察

第一節 獨島에 關한 古 記錄

一、獨島의 可支島

獨島는 「海驢」(Galop hua labattu) 가 棲息하는 곳으로서 有名하다 獨島에 游息하는 海獸를 國語로 「가지」 또는 「물개」라고 稱하는데 이것은 文獻備考에 海中有大獸 生形 赤眸無角 群臥海岸 見人 獨行害之 遇人 多走入水 名可也. 라고 明記되어 「가지」가 「海驢」임을 証示하고 있다 獨島에 「가지」가 棲息하므로 「가지섬」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命名은 마치 樺太北 시리도코 半島 南方海上의 一小島를 臨眺獸의 游息地임에 因하여 海豹島라고 稱하는 것과 類型인 것이다 正宗實錄(卷四十) 十八年甲寅(西紀一七九四)年 六月 戊午條에 「江原道 觀察使 沈晉賢 狀啓言 麟陵島 搜討 間二年 使節將 輪回舉行 已有定式 故 搜討官 越松萬戶 韓昌國處 發關分付矣 該萬

단한 事件이 있지 않았으며 그것이 問題된 것은 日本人의 海鹽 捕獲地로
利用하고 저의 島根縣領으로 編入함에 始한 것이니 이렇게 되기 以前에
鬱陵島の 行政區劃에 編入된 昭示된 公的記錄이 없다고 해서 獨島가 鬱陵
島の 郡守의 管轄下에 있었다는 事實을 否認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獨島를
日本領이라고 通告하여 오자 光武十年에 鬱陵島 郡守가 我國所屬獨島라
고 記錄하여 中央政府에 報告하였던 것이다

一四

第二節 日帝의 獨島強奪

一、俄日勢力의 角逐과 獨島

鬱陵島에서 日本人이 潛伐 密貿易하는 攻勢에 一大打擊을 준것은 俄羅斯
勢力의 進出이 되었다 그것은 高宗王에 甲午更張의 反動으로써 乙未冬으로
부터 俄國公館에 播遷해서 約 一箇年 滞在하는 동안에 西洋人の 利權獵取
가 盛行하였는데 그중의 露國人 關係는 建陽元年 (西紀一八九六年) 四月

에 咸鏡北道 慶源鎭城의 鉦山採掘權이 니스진스키에게 同九月에 茂山
鴨綠江流域 및 鬱陵島 伐木權이 뿌리너에게로 돌아갔다 여기 基因하여
光武三年(西紀一八九九年)에 俄國公館 마투닌이 우리政府에 照會하여
日本人 伐採者의 強制退去를 請求해오니 光武三年 및 四年의 鬱陵島 實情
調査는 實로 이러한 衝動에서 誘導된 일로도 볼수 있다 東海의 一孤島가
이제 俄日勢力의 一抗爭場으로 化하며 多年에 걸쳐오는 日本人의 橫暴도
國際的 圧力에는 어찌 하는수 없어서 四年以降으로 住民과 施設이 次々로
驅逐되고 말았다 그와 同時에 俄國은 技師 兵士等を 派遣하여서 古領에
類似한 行爲를 取하고 島の 南西에 當하는 南陽洞을 出浦口로 하여 伐採
한 木材를 海蔘威 方面으로 輸出하였다 光武三年에는 또 俄國人 釐利
제세링이 慶尙道 蔚山浦 江原道 長津浦 咸鏡北道 陳布島를 捕鯨根據地로
하는 權利를 얻어가서 뿌리어의 伐木事業과 함께 한참동안 우리東海上
에서 俄人の 活躍이 大端하고 이勢가 여러해 繼續하여 나갔다 光武八年

一五

(西紀一九〇四年) 二月에 俄日戰爭이 勃發하여 日本勢力이 韓半島를 披摩 하는 가운데 五月十八日에는 三이어 韓國政府로 하여금 韓俄關係의 斷絶을 宣言케 하니 卽

勅 宣 書

(一) 既往 韓俄兩國間에 締結한 條約과 協定은 一體 廢罷하고 全然 勿施 勅事

(二) 俄國臣民이나 會社에 認准한바 特許合同中 至今尚在 其期限內者나 自 今以後로 大韓政府가 以爲無妨한 者도 如前히 其認准을 繼續 宣有케 하나 至於 豆滿鴨綠江 麟陵島 伐植特許에 限하여는 本來 一個人民에게 許諾한것이 實狀은 俄國政府가 自作 經營할뿐 外라 該特許規定을 遵守치 아니 하고 恣意로 侵占的 行爲를 하였으나 該特許를 廢罷하고 全然 勿施勅事

라 하는것으로서 俄國의 勢力이 다른데서와 함께 麟陵島에서도 一掃되고

이런에는 日本勢力이 澎拜히 侵入하여서 다시 顧忌할것이 없게 되었음은 勿論이다 光武九年 五月의 이른바 日本海 海戰의 際에 俄國軍艦 『트미르 리 돈스코이』가 島의 外洋 四海里의 地點에서 爆沈된 것은 곧 麟陵島의 喪運命을 世上에 외치는 信號로도 볼것으로서 이以降의 일은 絮說을 要치 아니할것이다

二 中井養三郎의 東奔西走

光武七年 (西紀一九〇三年 日本明治三十六年)에 伯耆州 丹 島根縣 東伯 郡人中井養三郎이라 者가 「리양교」島-獨島-가 海驢의 群集地임을 發見하 고 그 捕獲業을 企圖하니 步兵軍曹 小原 某가 이에 贊同하여 幅八尺 長 四間의 一漁船을 購裝해 가지고 所要의 漁夫를 싣고 卽 五月에 바다를 넘어 「리양교」島 卽 獨島에 이르러 함부로 日本旗를 꽂고 海驢를 잡아 가지고 돌아 왔다 이번의 成功이 所聞나서 翌年의 漁期에는 競爭者

가 群出하여 漁獲의 惠이 生겼다. 이에 中井은 此期의 漁期가 終了되 뒤에 東京으로 가서 水産局長 牧某에게 이런 經過를 陳述하고 韓國에 交涉하여 貸下를 맡어 달라는 幹旋을 請하였다. 牧은 그럴것이 아니라 海軍水路部에 가서 그 所屬關係를 따져 보라고 해서 中井이 水路部에 問議한대 水路部에서는 確答을 주지 못하고 다만 日本人이 事業을 施設하고 있는 바에는 日本領으로 編入 할수도 있을것이란 意見을 말하였다. 尙다

勿論 無責任한 一放談이 었다. 그러나 中井은 여기서 妄念을 내어 가지 고 九月二十九日에 內務·外務·農商務의 三大臣에게 「기안」島 領土編入 及 貸下願」이란 書を 提出하였다. 이 各省에서는 韓國의 領土로 推定되 는 地域을 無謀하게 處理 하는 수 없어서 오래 躊躇하고 있더니 中井은 幾個名士의 後援을 얻어 가지고 領土에 編入해 그대로 通過된 精勢를 力說하면서 東奔西走하였다. 主되는 理由는 이며 한참 俄日戰爭이 進行되고 이 一帶가 海軍의 制壓下에 있었으며 아무것을 해도 關係치 아니 하리라

한이었다. 一九二三年七月二十五日發行 島根教育會編纂「島根縣誌」

三、領土編入과 島根縣告示 第四〇號

中井養三郎의 東奔西走에 依하여 獨島를 強奪할 氣運이 成熟되었으나 그 때도 日本政府之 慎重한 態度를 取하여 內閣會議에 提出하여 이를 討議한 結果로 中央問題로 하는것 보다 地方事實으로 함이 사람의 耳目을 避하는 好計라고 해서 기안」島의 接連地인 島根縣으로 하여금 아는듯 모르는듯 하게 一音示를 縣廳의 門前에 掲付하는 形式을 取하므로서 領土編入을 決行하기로 決定하였다. 이 方法에 依하여 翌 光武九年 (西紀一九〇五年 明治三十八年)에

島根縣告示 第四〇號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 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 隱岐島ヲ 去ルコト 西北 八十五哩ニ アル 島嶼ヲ 竹島ト 稱シ 自今 本縣所屬 島司ノ 所管ト 定メラル

明治三十八年二月二十二日

島根縣知事

松本武吉

이라는 것으로서 狡猾하게도 또 簡單하게 他國의 領土를 占奪하여 버렸
다 이때의 韓國은 俄日開戰後 數次의 強迫的 協約으로서 이미 日本의 마
음대로 놀리는 情勢下에 놓여 있었음은 勿論이다 特別히 領土編入을 告示한
後 三個月만에 俄日戰이 決勝局面이라 할 이른바 日本海大海戰이 이島嶼의
海面에서 行해지고 五月二十八日에 俄國의 戰艦艦 第一世 同
이리온 同 아브리세진 同 후이 리양쿠루 同 岩의 앞에서 力屈降服
하였다 함은 當時 東郷司令長官의 公報에 載다났음과 같다 內務系統에서는
竹島라는 名稱을 붙였으나 海軍系統에서는 依然히 리양쿠루 同 이들을 쓰
고 이때뿐 아니라 오래도록 變함이 없는 事實에 注意할 것이다 歷史地理
第五卷 第一號 (昭和五年七月刊) 坪井九馬三의 竹島에 對하여 에 依
하면 獨島는 日本海軍의 補給基地로 使用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더욱 竹島

가 아닌 리양쿠루 同 이들을 使用하였음을 意味深長하다고 아니할수없다

四 鬱陵島守의 措置와 韓國의 實情

日本이 獨島를 強奪한것은 要件과 權力의 不足 밑에서 行한 國際소매치
기의 行爲이던 것이다 便宜한 機會가 있어서 一時 奸計를 遂行하여 一方
的인 告示는 하였으나 韓國政府가 認定하지 않으면 아무 効力이 없으므로
告示한 翌年인 光武十年(西紀一九〇六年 明治三十九年) 陰三月에 隱岐島守
東文輔 以下 十餘名의 官員을 鬱陵島에 派遣하여 鬱陵郡守 沈興澤에게 獨
島가 日本의 領土가 된 것을 宣言하고 爾後 韓國漁民의 獨島往來를 禁하여
달라는 말을 하였다 可支魚의 産地로 有名한 屈島 하나를 잃기된
郡守 沈興澤은 이 事實을 다음과 같은 報音書를 作成하여 道廳 或은 中
央政府에 提出하였다

報音書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本郡 外洋 百餘里許이 음드니 本月初四日 辰時量에
輪船一隻이 來泊于郡內道洞浦 而 日本官人 一行이 到于官舍하여 自云 獨
島가 今爲 日本領地 故로 視察次로 來島이다 인바 其一行 即 日本島根
縣 隱岐守 東文輔 及 事務官 神田西由太郎 稅務監督局長 吉田平吾 分
署長 警部 影山岩八郎 巡查一人 會議員一人 醫師 技手各一人 其外 隨員
十餘人이 先向戶穗入口 土地 及 住産 多少하고 次向 人員 及 經費 幾
許 諸般事務를 以調查 樣으로 錄去이 암기 茲以 報告하오니 照亮하심을
務望함

光武十年丙午 陰三月五日

이 報告는 獨島廳에 保管하고 있는 副本을 轉載한것으로 이것이 어떻게
處理되었는지 그것은 아직 些細히 알수 없으나 當時 日本勢力이 이미
韓國政府를 支配하여 國家全體의 運命이 重大危機에 直面하고 있었음으로
政府는 獨島와 같은 조그마한 無人孤島에 對하여 도라볼 겨를이 없었음

뿐 아니라 抗爭할 能力도 없었다 그러므로 現行海圖上에 獨島라는 이름을
로 記錄되지 않고 竹島 또는 竹島쿠르¹로 알려진대로 있음은 不得
그한 事情이 였다 그런데 日本側은 一九〇五年 以來 日本島根縣 隱地郡
의 行政下에 있었고 그 島嶼는 以前에 韓國에 依하여 請求 또는 抗議한
바 없으므로 日本이 領有權을 가진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國際소매
지기의 行爲가 外交文書로서 正式으로 抗議할수 없었던 當時의 歷史的悲運
을 度外視하고 國際法의 庇護아래 國際的으로 是認된다면 國際正義가 어디
있으며 國際道義를 어디서 찾아 볼수 있겠는가!!

五、日帝支配下의 獨島와 韓國의 領有權을 證明하는 文獻
日本은 獨島를 強奪하고 韓國사람의 漁採를 禁하였으나 地理上으로 보아
獨島는 日本 隱岐島에서 八十六浬 島根縣境市에서 一百三十浬나 되는 遠距
離에 있고 我國 獨島에서 겨우 四十九浬 밖에 안되는 近距離에 있는 가

뒤에 日本이 獨島를 強奪한 後에도 日本人 보다도 鬱陵島 住民이 더 많
이 이섬을 利用하였으므로 이 島뒤에 日本政府의 記錄에 韓國에 屬한 섬으
로서 獨島를 記載한 例가 許多하다

(一) 韓國水産誌 (一九一〇年五月刊行) 本水産地는 日本이 獨島를 強奪
한 三年後인 隆熙二年(西紀一九〇八年)에 韓國政府의 農商工部 水産課
長 庵原文一以下 日本人 官吏들이 總出動하여 韓國에 屬한 島嶼를 하
나도 빠지 아니하고 實地踏査한 後에 그 位置와 産物 其他를 明記하
여 編纂 出版한 準 政府의 記錄文獻 으로서 그 第一輯 第一編 地理
第七章 沿岸의 水路告示 條에 竹島 (Liancourt Rocks) 即 獨島
를 韓國 屬島로 認定하여 記載하였다

(二) 朝鮮沿岸水路誌 (一) 韓日合併에 關한 條約이 西紀一九一〇年 八月三十
二日에 調印된지 二十三年後인 西紀一九三三年(昭和八年)에 日本海軍省
에서 本州沿海水路誌와 同時에 發刊한 冊으로 이것도 朝鮮에 附屬한

島嶼를 總網羅하여 그 位置와 地勢 及 産物을 詳細히 記錄한 것인데
그 第三編 朝鮮東岸에 鬱陵島 及 竹島를 記載하여 獨島를 朝鮮에 屬
한 섬으로 明記하여 있다 同 竹島 條에 「島上에는 家屋을 建築
할만한 곳이 極히 적고 明治三十七年 十一月에 厚禮 對馬가 이섬을
突如할 때에는 東方島에 漁夫用의 菰草小屋이 있었으나 風浪 때문에
흔히 破壞하였다 한다 毎年 여름이 되면 海鹽를 잡기 爲하여 鬱陵島
로부터 이섬에 오는 者가 數十名의 多數에 達할 때가 있다 그들은
島上에 小屋을 짓고 每回 約十日間 假居한다고 한다」 라고 記錄되어
있다 明治三十七年 이라고 하면 日本이 獨島를 強奪하기 一年前인데
그때에도 鬱陵島 住民이 可支魚를 잡기 爲하여 菰草小屋을 짓고 夏節
十餘日式 滞在한바 이섬이 朝鮮에 屬한 섬이 었다는 것을 明証하고
나름이 있다

특히 日本海軍省에서 朝鮮沿岸水路誌와 同時에 發刊한 本州沿海水路誌

第二卷 日本海沿岸에 竹島の 名稱만 드러 놓고 朝鮮沿岸水路誌에 와서 그 位置와 地勢及 産物을 詳細히 記錄한 것은 竹島 即 獨島가 本來 부터 韓國에 屬한 섬이요 地理的으로도 韓國에 屬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인 外野에 이와같이 한것이다

(三) 『歷史地理』 — 西紀一九三〇年(昭和五年) 六月에 發行한 歷史 地理 第五五卷 第六號에 收載한 樺烟雪湖의 『日本海에 있는 竹島の 日鮮關係에 對하여』 라는 小論文에서도 「竹島와 鬱陵島는 지금 朝鮮 江原道에 屬하여 朝鮮領土로서 日本海 最東端에 屬하여 있다」 라고 記述하고 竹島 即 獨島를 韓國領土로 指稱하였다

(四) 『三國圖覽圖說』 — 「仙臺 林子平圖天胡五年秋 日本橋 北室町三丁目 東都須原屋市兵衛 梓」라고 地圖面上에 出版者를 表示하는 記載文句가 以는 百五十丘前의 地圖에 依하면 東海中 獨島로 看做되는 島嶼는 大小 而島가 隣接表示 되었으며 「竹島」라 榜記하고 『此島크기 隱州크기 望』

又 朝鮮크기 見ル」라고 記載하고 『朝鮮ノ特之』라 明記하였을뿐 더러 全圖의 陸地部分은 그 所屋에 따라 着色되었으며 「朝鮮國」은 黃色 日本은 淡綠色 中國은 紅色等이나 獨島는 明瞭히 黃色으로 着色되어 있다 檀紀四二八七年 一月八日 駐英公使로 부터의 報告에 依하면 最近 英京 British Museum에서 그 秘藏品을 鑿하여 Oriental Maps and Scapes Special Exhibition을 開催하였는데 이 三國圖覽圖說이 出되여 公開中에 있다고 한다

(五) 『旅程と 費用概算』 — 昭和十三年十二月一日 十六版發行 東京麹町區丸の内一丁目一番地 編輯兼發行所 日本旅行協會의 朝鮮嶺概說中 九三〇頁을 보면 『朝鮮의 四極と面積』라고 하여 極東은 北緯三七度三一分五秒 東經一三〇度五六分三〇秒에 「度尙北道 鬱陵島 竹島」라고 明記되어 있다

第三節 八一五解放後의 獨島의 地位